

社說

모든 삶은 애처로운 그 무엇이어서(I)



음양오행 경제

김태규
명리학자·칼럼니스트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영화 '보헤미안 랩 소디'를 시청했다. 평소 극장에 가는 것을 성가셔하는 탓에 그냥 흘러보냈는데, 좋구나 싶었다.

보고 난 소감은 삶의 진지한 모습을 다루는 영화는 늘 애잔하고 애처롭다는 것이다. 어쩌다가 게이가 된 바람에 에이즈로 죽는 프레디 머큐리, 하지만 대중 스타다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프레디 머큐리의 생년월일을 검색해보았더니 1946년 9월 5일로 나온다. 태어난 시에 대해선 여러 설이 있는데 아침 5시 10분설이 가장 유력하다. 출생지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앞바다 인도양에 위치한 잔지바르에서 태어났으니 표준시와 잔지바르시의 오차가 대략 24분 정도, 이에 아침 5시 10분에서 24분을 빼면 4시 46분, 즉 寅(인)시라 볼 수 있다.

사주는 丙戌(병술)년 丙申(병신)월 壬午(임오)일 壬寅(임인)시가 되고 이에 60년 순환에 있어 임춘 바다는 1932년과 1992년 壬申(임신)이 된다. 반대로 운기의 절정인 임추는 1962 壬寅(임인)년이다.

실제 그가 죽은 것이 임춘 바다 직전 해인 1991년 11월 24일이나 앞의 사주 분석은 나름 신뢰가 간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은 1987년이라 하니 바다 5년 전의 일이다. 운세가 한창 하강하고 있을 때였던 것이다.

머큐리가 퀸이란 밴드를 결성한 때는 1970년이었으니 운세 상으로 秋分(추분)의 때였다. 이 무렵이면 사람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때인데 마침 그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으니 시작하자마자 무난하게 성공 가도를 걸었다.

그가 남긴 대표작은 단연코 1975년에 발표한 싱글 음반인 '보헤미안 랩소디'이다. 이로서 세계적인 그룹, 요즘 시헛말로 '월드클래스의 줄임말'에 올랐다. 운세 상으로도 1975년은 한 해의 계절로 치면 10월 하순의 수확을 보는 때, 이를 나는 霜降(상강) 재운이라 부른다. 사실 그 노래가 프레디 머큐리 음악의 절정이었다. 노래는 그저 '마마!' 하는 소리만 귓전에 쟁쟁하다. 그저 애처롭다는 생각만 든다.

오래된 정령이란 착각에 빠지곤 해 오랜 세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상대로

팔자를 통해 운명을 추리하고 앞일에 대해 상담도 하고 자문도 해주다 보니 나 호호당 자신은 이제 보통의 사람과는 약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이에 경험 또한 그 사람의 생애 일어난 일들을 기초로 한다. 남의 경험에 대해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건 체험이 아니다.

그런데 나 호호당은 남의 경험이란 하지 만 수없이 많이 들었다. 게다가 속의 내밀한 얘기와 고뇌, 걱정, 털어놓기 힘든 경험들을 무수히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입도 될 때도 많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통해 그 사람의 운명이 전개되는 시간표를 알고 있기에 그런 요소들이 훗날 그 사람에게 있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미래보다 추억의 삶이 더 많아졌으니 게다가 나이마저 이젠 예순일곱이 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체험한 세상일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어려서 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김영삼 대통령의 쉼소리, 김대중 대통령의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특유의 빠른 어조, 김종필 총리의 어눌한 듯 느긋한 충청도 억양, 노무현 대통령의 열정적인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선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부드러운면서도 결단기 가득한 음성, 구강 구조로 인해 공기가 빠지는 문제인 대통령의 음성...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의 개성에 가득한 저마다의 목소리 들이 일순에 귓전에 울려오고 그 모습들이 내 눈앞을 스쳐 간다.



공연하는 프레디 머큐리(왼쪽)와 브라이언 메이

권국석 홈페이지

상강 재운에 발표된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타인의 무수한 사연들이 내 과거의 생 체험으로 느껴져

짐작이 간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나 호호당은 그 많은 사람의 생애가 마치 나 호호당이 윤회와 전생을 거쳐 오면서 과거의 생애 체험했던 나 호호당의 삶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나 호호당 스스로가 마치 수만 번의 생을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진다. 나 자신이 너무나도 오래 살아온 精靈(정령)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현재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이면서도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착각, 또는 '반지의 제왕' 속에 나오는 나무 정령인 '엔트'와도 같은 느낌,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숲한 일들과 사람들의 일을 지켜본 그 나무 정령 말이다.

젊은 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저런 음성과 아단치는 목소리,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표정,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정겨운 목소리와 표정의 다양한 뉘앙스, 극진히 사랑했던 먼저 간 강아지의 쾌활한 울음소리와 미소, 죽기 직전의 그 이별을 고하는 표정 등등 수많은 표정과 소리가 일순에 지나 간다.

거기에 더하여 평생 즐겨 읽어온 많은 나라와 대륙의 역사와 인물들의 스토리들이 더해져서 늦은 밤 글을 쓰거나 사색에 빠지거나 책을 읽다가 문득문득 나 개인의 인격체가 다른 존재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느낌을 받곤 한다.

오행(五行), 그것은 동양학의 기본적인 원리



인테리어 풍수

정완수
문학박사·풍수지리학자

“각각 기능을 알면 풍수와 사주를 알 수 있다”

인테리어 풍수도 묘지풍수나 주택풍수와 같이 기본적인 원리의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음양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오행과 팔괘에 관한 것이다. 전편의 음양에 이어 오행에 대해서 설명한다. 오행은 하도 낙서(河圖洛書)로부터 나온 것으로 만들

을 이루는 기본요소로,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를 말한다.

목은 나무에 불을 붙여 사용하므로 목생화(木生火)해서 화를 생(生)한다. 나무가 땅의 양분을 빼앗아가므로 땅을 극(克)하여 목극토(木克土)하고 목은 금으로부터 극을 당하여 금극목(金克木)한다. 즉,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형상을 상징한다. 나무는 확장, 활동적, 상승성, 사각형, 가족, 부(富)를 상징한다.

화는 화생토(火生土)하여 땅을 생하고 열로부터 금이 제련당하므로 화극금(火克金)한다. 또 물에 의해 불이 꺼지므로 물로부터 극을 당해서 수극화(水克火)한다. 화는 열정, 열광, 삼각형을 상징한다.

토는 금을 생하여 토생금(土生金)하고 흙으로 독을 쌓아 물을 제어하므로 토극수(土克水)라 한다. 토는 앞에서 말한 것

처럼 목으로부터 극을 당한다. 토는 자립성, 변화, 건강, 지식을 상징한다. 바위틈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으로 금은 수를 생하여 금생수(金生水)한다.

금은 목을 극하고 화로부터 극을 당한다. 금은 효용, 가치, 미적 감각, 원형, 어린아이를 상징한다.

물은 나무를 성장시키므로 수생목(水生木)한다. 물은 화를 극하고 토로부터 극을 당한다. 물은 하향성, 굽슬굽슬, 이동을 상징한다.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생상극은 새롭게 변화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생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고 극은 지나친 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듯 오행의 상생상극을 아는 것이 인테리어 풍수의 시작이다.

잇단 탈북인 강제 복송 진상 밝혀야 한다

어제 한 매체는 검사·교수 등 전문직 출신 탈북인을 확대하며 남북관계의 결림돌로 취급하는 문재인정부의 극심한 북한 눈치 보기 단면을 폭로했다. 한국에 입국한 두 북한 외교관 조성길·류현우도 무직으로 밝혀져 충격

을 주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있다”고 외신기자 간담회에 발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탈북인들에 의해 고소당했다. 임기 1년여밖에 안 남는 현 정부가 ‘올해 내 김정은 서울 답방’을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넘지 말아야 선을 자주 넘고 있다.

탈북인들과 함께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단

법인 물랑조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탈북민 증언은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이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의 언론에 발언한 것은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인영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가 탈북자들에게 대한 범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2018년 200여명, 2019년 158명의 북한 목선이 동해로 넘어왔다”(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동해서해 군부대에 통

일부 예산 46억을 들여 탈북민 송환 시설을 운영 중이다(강철환TV)”, “2018년 12월 20일, ‘김정은 암살 미수 북한 군인들, 한국이 체포해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 있다’는 일본 주장에 해명하라.” 이런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동해 선박 이용 탈북인 강제 복송 진상을 밝히라’는 주장도 공식 제기됐다.

어제로 창립 1주년을 맞은 남북함께 국민연합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무슨 일 있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남북함께는 2019년 동해로 귀순한 탈북 청년 두 명을 정부가 본의

“김정은 암살 모의 北군인 일본 망명 시도” “한국 군경이 출동해 북한 송환” 해명해아 동·서해 군부대 ‘탈북인 수용소도 공개를

들의 뜻에 반해 안대와 포박 차림으로 관문점을 통해 강제로 복송시킨 사건들에 항의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0일 동안 단식한 남북한 출신 인권운동가들이 추측이 돼 만들어진 인권단체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탈북 청년 강제 복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발제를 맡은 북한인권연구소 장혜원 연구원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발생한 ‘한국 군함 광개토태왕함 레이더 조사(照射)와 일본 초계기 저공 비행 사건’은 많은 의문점이 있다”며 일본 측이 주장하는 “김정은 암살 모

의에 가담했던 북한군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긴급 연락을 받은 한국 정부가 즉각 군경을 출동시켜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국 합정과 일본 추계기가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건임”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내놓은 인물은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의장격인 당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 기와노 가스토시라 무게가 실린다. 그는 “한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시신 1구와 3명은 김정은 암살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군 병사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들어온 이 정부의 여러 친북적 행태 중 가장 위중한 사건으로 국제난민협약 33조와 국제고문방지협약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기소값이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정의를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한 선박에 대해 NLL에서 밀어내기 했다”고 실토했다. 이런 행위는 탈북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 전체를 대 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에 반한다. 인권은 차치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가 결여 돼 있는 발언자 행태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아닌가.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아르헨티나’ 잇었나

문재인정부의 대중영합적 선심 정책이 끝을 모르고 내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70여년 동안 선거철 선심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정부

여당은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예 대통령까지 발 벗고 나섰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5차 전 국민 지급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의도는 볼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정들의 ‘청 비위’ 문제로 인해 다시 차려지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쪽이면

돈 주겠다는 ‘공개 매수 행위’에 다름 아니다.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탄핵감이다.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어리야 다루듯 우롱하는 처사다. 작년 총선 때도 선거 후에 4인 가족 당 100만 원씩을 준다고 했었다.

이번에도 작년과 비슷하다면 전 국민에게 50여조 원을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가정부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 국민층이든 일률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의 끝판 왕’이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짜리 초 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당초 예산안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원 등 민생 지원 예산 7조 5000억원을 증액했다. 순증예산 2조 2000억원의 대부분 국제 발행으로 충당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4.5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고 있다. 이러니 야당은 물론 합리적 의식을 지닌 국민은 여론의 행태에 포퓰리즘이나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의 기본 내키는 대로 돈을 펄펄 쓰는 것은 왕조시대 임금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었다. 이라기에

청·여당 4월 보선 겨냥 잇단 선심정책 ‘50조 국민 위로금’은 노골적 매표 행위 대통령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사유’

정 주고 싶으면 대통령과 참모, 여론인사들의 사재를 모아 위로금으로 지급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유형의 부채든지 경제주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 가계와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빚 줄이기에 힘써야 할 때다. 경기 회복 못지않게 최우선으로 살필 대목이 재정건전성이다. 나라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109조700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적자 37조6000억원의 세 배 수준이다. 국가채

무도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첫째 660조원이었던 것이 올해 945조원으로 증가한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엔 1000조원을 돌파해 1070조원은 기록할 전망이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가 따로 없다.

이런 현실에서 여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또한 국가부채 폭증은 안중에 없이 보선과 내년 대선을 겨냥한 막무가내 시 재정 살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손실

보상법의 경우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기간을 4개월로 정하면 총액이 최고 98조8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정부 총예산(558조원의 17%에 달한다.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 길 추구한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후안 페론 대통령의 선심정책에 거덜나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역사적 사례를 직시하길 바란다. 오늘 대한만 국도 마찬가지다. 유한한 권력이 막가파 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도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태를 상식 있는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